

도평동 폐유리자원화시설 놓고 '갈등'

폐유리자원화시설 반대대책위 어제 도의회 앞 시위 "사업부지 인근에 주민 거주... 아이·노인 건강 염려" 제주시 "자원화시설 부재 시 처리 대란 올 수 있어"

제주시 외도동 도평마을에 추진 중인 폐유리자원화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폐유리를 처리하기 위해 자체 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A업체가 도평마을에 건축면적 1600㎡의 폐유리 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 곳에는 1일 30t의 폐유리를 재생하거나 건축자재로 가공하는 자동화 처리시설 및 장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자원화시설이 들어서면 소주·맥주 병은 세척과 소독작업을 거쳐 주류회사로 보내고, 그 외 깨진 병 등 잡병은 선별한 뒤 파쇄작업을 거쳐 유리재조화사로 보내진다. 재활용이 불가할 경우 녹여 건축자재로 활용하게 된다.

그동안 도내 병병 수집업체는 폐유리가 발생되면 선별과 파쇄작업을

거친 뒤 타 지자체 폐유리자원화시설에 반출해 처리해왔다. 규정대로라면 폐유리는 산업폐기물에 속해 공공처리시설인 봉개동 매립장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재활용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민간업체가 중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에서는 연간 1만2000t이 넘는 병병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를 받는 타 지역 폐유리자원화시설은 병병에 온갖 이물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받기를 꺼려면서 폐유리자원화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A업체가 지난 6월 29일 폐유리자원화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외도동주민센터에 사업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사업부지 내에 주민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고,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도평동폐유리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유리자원화시설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평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도평동 폐유리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오후에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을 내에 폐유리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기업 특혜 오히려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설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나 유리가루

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있어 적극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한 상황이고, 인·허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업체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으나 인원이 저조해 설명회를 다시 개최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병병 및 폐유리의 다른 지방 반출·반입을 금지하게 되면 처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제주시 봉개동 도시계획도로 10월 중 개통

지역주민 불편 해소 기대

제주시 봉개동 대기고 서측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소로2-4, 5호선)가 10월 중 개통된다.

제주시는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대기고 서측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진행 10월 중 개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1993년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에따라 총사업비 14억원(보상비 10억, 공사비 4억)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연장 130m(폭 8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장기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추진

제주시, 91건 대상 10월말까지 사전예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무더기 직권취소가 추진된다.

제주시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91건에 대해 허가 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허가취소 사전예고는 올해 10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주거용 54건(공동주택 1, 단독주택 53), 비주거용 37건(근린생활시설 26, 업무시설 1, 창고시설 5,

기타 5)으로 총 91건이다.

시는 내달 말까지 허가취소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건축 관계자는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허가 건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10월까지 직권취소를 유예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는 장기 미착공 30건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년간 제주도 관내 건축허가 직권취소 건수는 2018년 95건, 2019년 97건에 이어 지난해는 54건으로 파악됐다.

이윤형기자



만개한 황화코스모스 27일 제주시 영은대리 인근에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한 가운데,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며 걷어가는 가을을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고품질 감귤 가격보장제 시범 운영

생산능가가 가격 결정... 서귀포인정 통해 판매

서귀포시가 오는 10월 말부터 이뤄지는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에 앞서 고품질 감귤 당도별 가격보장제를 시범 운영하며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고품질·고당도 노지감귤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보장하고 농가 스스로 고품질 감귤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인정'을 통한 고품질 감귤 가격보장제를 시범 시책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품질 감귤 최저 가격보장(1kg당)은 >11브릭스 이상 2000원 >12브릭스 이상 2600원 >13브릭스 이상 5800원 등이다.

시는 고품질 감귤가격보장제를 통해 지금까지 중도매인 등이 감귤가격을 결정하면서 생산자인 농가들은 감귤가격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유통 시스템의 문제점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간유통단계를 생략한 서귀포인정을 통해 고품질

고당도 감귤 가격 결정에 농가가 직접 참여해 안정적인 농가 수취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으로 고품질 감귤을 구매할 수 있는 착한소비 시스템 정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출하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신청 농가 가운데 원지 정비 사업 농가, 토양 피복 재배 농가를 우선으로 당도별·품질별 최종 50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소도리)와 서귀포인정(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판매시작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는 고품질·당도별 감귤 가격보장제와 함께 서귀포인정 노지감귤 특판 기획전도 오는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백국기기자 haru@ihalla.com

도, 인력난 양식장에 인력절감 장비 지원

전동 리어커·자동급이기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인력절감 장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9월 현재 도내 양식장 외국인 고용인원은 400여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800여 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제주도는 양식장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이 감소한 양식장을 대상으로 인력절감형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배합사료 혼합기, 자동급이기, 사료운반용 전동 리어커, 지게차 등이다.

이를 위해 27일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고대리기자

알림

2021 JDC와 함께
생각을 나누게 하는
NIE
공모전

공모기간 2021년 10월 18일(월)

공모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생

공모분야 NIE 학습활동 및 스크립 (가시활동: 2021년 1월1일차 신문부터 가능)

형식 활동지(크기 자유) 10매 이상

시상

▶개인	▶대상 1명(상금 40만원)	▶단체	▶대상 1팀(상금 40만원)
	▶금상 4명(각 20만원)		▶최우수 9팀(각 15만원)
	▶은상 6명(각 10만원)		▶우수 8팀(각 10만원)
	▶동상 11명(각 5만원)		

▶지도자 및 지도교사상: 1명(상금 20만원)

※단체상은 일반 및 학교부문 구분 없음. 단, 일반부문은 팀당 3명 제한. 학교는 학급 또는 동아리, 부문별 출품작 수와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내역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과 팀부문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접수처 우편(제주시 서서로 154 한라일보사 4층 편집국 NIE 공모전 담당자 앞) 또는 방문 접수

문의 010-2024-5692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4년생
황금향	5년생
감명(레드향)	3,4년생
한라봉	4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년생
감명(레드향)	1년생
탱자묘	1년생

유라조생 접수분양계약

한림종묘사

010-3690-2453

감귤 신제품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왕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중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맛1호, 명유자,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베이지),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명자묘목(1000본 이상)

오하라베니
자원종묘 착과모습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제품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요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알티 등 일본권정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골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갈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궁천 베이지(오하라베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2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18-2003-20-08

010-2699-2355